

# ‘보편’에 다가가는 수단으로서의 ‘식민지인 되기’

이효석의 <녹색탑>을 중심으로

배상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현대문학 전공  
sentell@naver.com

- I. 머리말
- II.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과 <녹색탑>
- III. 평등한 애정관계의 조건으로서의 영문학
- IV. 애정의 완성으로서의 수혈
- V. 맺음말

##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안에서 〈녹색탑(錄の塔)〉이 차지하는 위상을 검토한 후, 이효석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보편으로 설정하는 서구라는 기표가 내선일체 정책과 맞물려 빚어내는 효과를 분석하려는 데 있다. 1939년부터 발표된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의 “전통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과정을 통해 일본과는 구별되는 ‘조선적인 미’를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sup>1)</sup> 그리고 이 ‘조선적인 미’는 지식인 주인공에 의해 그 가치가 진술되면서 단지 조선 사람들이 향유했던 관습 이상으로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지닌 보편해야 할 문화유산의 지위를 획득한다. 〈녹색탑〉 역시 ‘조선적인 것’이 가지는 미를 논하기는 하지만 영문학 연구자가 등장하고, 주인공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매개로 영문학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조선적인 것’이 아닌 외래적인 요소, 서구근대문학을 문학의 전범으로 삼는 이효석에게는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서구적인 것’이 소설의 서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적인 ‘조선적인 것’과 보편적인 ‘서구적인 것’은 얼핏 상반되는 듯 보이지만 일찍이 신행기가 이효석의 향토적 색채를 지닌 작품과 모더니즘 경향의 작품이 모두 ‘근대’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상통한다고 분석한 것처럼<sup>2)</sup>, 위에서 언급한 두 가치 역시 한쪽이 존재하려면 다른 한쪽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호성을 지닌다는 면에서 상통한다. 〈녹색탑〉은 ‘조선적인 것’의 아름다움과 같은 미적 감각이 후경(後景)으로 밀려나고, 일본 여성과 조선 남성의 연애가 전면적으로 서사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내선결혼이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은 1921년 〈內鮮人通婚法案〉이 총독부령 99호로 성립된 이후이지만, 제정 당시의 일시적인 호응을 제외하고는 조선인의 민족적 반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적 시선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다가, 미나미 지로 총독에 의해 황국신민화 정책의 방침이 분명하게 선언된

1)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에 나타나는 ‘조선적인 것’과 ‘미적인 것’은 작품마다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층위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후에 다른 원고를 통해 보다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2) 신행기, 『李孝石と植民地近代-分裂の記憶のために-』, 『植民地近代の視座 朝鮮と日本』(岩波書店, 2004), 95-117쪽 참조.

1938년의 〈內鮮一體ノ強化徹底ニ關スル件〉 이후 다시 본격화된다.<sup>3)</sup> 남성 가장모델을 상징하고 만들어진 일본의 호적제도에서 여성의 남성의 존도는 매우 높아 1939년 이후 국책으로 내선결혼이 장려된 당시에 일본 여성들은 조선 남성과의 결혼을 꺼렸으며<sup>4)</sup>, 조선 남성이 일본 호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도 있을 만큼<sup>5)</sup> 내선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녹색탑〉에서 두 남녀의 연애는 여러 장애물을 만나지만, 이광수나 한설야의 내선연애 소설과는 달리 두 남녀가 각각 ‘외지’와 ‘내지’라는, 서로 다른 호적을 가진다는 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두 사람도 서로의 호적을 분명하게 인지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출신지가 연애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설 안에서 조선이라는 표상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장면은 두 사람의 연애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3자의 외모를 그럴 때이다. ‘내지’와 ‘외지’의 분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효석을 통해 총독부 정책에 협력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으면서, 총독부 정책에 포섭되지 않는 ‘제3의 길’을 지향하여 전시체제를 돌파해나가려는 자세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녹색탑〉에서 나타난 ‘외지인’과 ‘내지인’의 관계구도는 총독부의 내선 일체 정책과 표면상 유사하더라도, 이효석이 총독부 정책을 옹호하려는 의도하에 그 정책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녹색탑〉이 연재된 『국민신보』는 매일신보사에서 1939년 4월 3일 “반도의 황국신민화”를 목적으로 창간한 일본어 주간지로, 기사는 물론 게재되는 소설들도 황국신민화 정책을 소재로 삼았다. 〈녹색탑〉에 등장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의 사랑은 분명 총독부의 내선결혼

3) 朴慶植,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下券(靑木書店, 1973), 50쪽.

4) 중매업자가 조선인을 일본인인 양 속이고 결혼을 성사시켰으나 조선인과 너무 살기 싫었던 여성이 아이를 둘이나 낳고 나서도 도망쳐 나온 사례도 있었고(鈴木裕子, 『從軍慰安婦・內鮮結婚: 性の侵略・戦後責任を考える』, 未來社, 1992, 107쪽), 내키지 않지만 국책을 따라 조선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내선결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鈴木裕子, 위의 책, 107-108쪽).

5) 노동목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 남성이 일본인과 불공평한 임금격차에 불만을 품고 내지 호적을 획득하기 위해 내선결혼 국책을 이용해 일본 여성과 결혼하기도 했을 만큼 황국신민화 정책 이후에도 호적에 따른 차별은 계속되었다(鈴木裕子, 위의 책, 110쪽).

정책을 의식하고 채택된 소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소재가 총독부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해서 소설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가 그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효석은 이 소설을 연재하던 당시인 1940년 4월에 『삼천리』에서 당시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에 소설을 연재하던 네 명의 소설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新聞小說과 作家의 態度」라는 제목으로 실린 설문에 참여한다. 이 설문에서 그는 “「戰爭」을 取扱하시는가”라는 『삼천리』 편집진의 질문에 “取扱하지 않습니다. 作中人物의生活에 隱然中에 그影響이 浸潤될는지는모르나 創作意識에 올리는 않습니다”<sup>6)</sup>라고 답하며 자신의 문학창작이 전시체제 정책에 종속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당시 이효석은 조선에서 발간되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국민신보』 모두에 장편소설을 연재하고 있었으므로, 한편으로는 당시 조선 문인 중에 가장 총독부 정책에 협력적인 문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삼천리』의 설문에서 위와 같이 전쟁의 상황과 그의 작품세계를 확실히 구별하는 답변을 남긴 것은 매우 흥미롭다.<sup>7)</sup> 그는 총독부 기관지에 소설을 연재하고 있을지라도, 총독부 정책에 영합하면서 그의 창작경향을 억지로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은 〈녹색탑〉에 재현된 내선연애/결혼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녹색탑〉에 관한 연구는 ‘서구적인 보편을 지향하는 이효석의 경향을 드러내는 지표로<sup>8)</sup>, 혹은 이효석의 일제 협력

6) 「新聞小說과 作家의 態度」, 『삼천리』(1940년 3월), 123쪽.

7) 1940년 3월호 『삼천리』에서는 ‘조선반도의 바람직한 내선일체를 모색하는 조선의 유명한 지식인들의 논설(현영섭, 김명식, 인정식, 김한경, 김두정을 필자로 내세운 특집 「〈內鮮一體〉體內的 朝鮮民衆의 諸問題의 考察」)과 생활개선을 강조하는 이광수의 논설과 소설(「生活改善의急務를論함」, 〈옥수수〉),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부들의 생활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戰爭長期化」, 「家庭生活」, 「主婦座談會」)가 실린다. 이전과는 달리 분명하게 국책을 선전하는 의도를 담은 글들을 적극 게재하는 『삼천리』의 편집 방향 속에서도 이효석은 자신의 작품세계와 전시 상황에 거리를 두고자 한다.

8) 김윤식, 『일제 말기의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재영, 「구라파주의의 형식으로서의 소설-이효석 작품에 나타난 서양문화의 인유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46호(2011); 김대성, 「이효석 문학의 초월적 미의식 고찰」, 『한국문학논총』 제58집(2011); 정여울, 「이효석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과 미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이양숙, 「이효석의 「푸른 탑」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5호(2012).

과 저항의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sup>9)</sup>로 연구되어왔다. <녹색탑>을 연구해 온 그간의 연구경향은 일제 말기 텍스트를 분석하는 탈식민주의적 방법론과 일제 정책 협력 여부를 기준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방법론이라는 두 가지 큰 틀 안에서 진행되어왔다. 전자에 속하는 연구들은 이효석의 문학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미적인 것의 추구 혹은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을 국제주의를 내세우던 이전의 그의 작품세계와의 연장선에서 연구한다. 후자에 속하는 연구 중 김윤식의 『일제 말기의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에서 이효석을 논한 「이효석론」(1), (2)는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에 결여된 역사의식이 낳는 가치에 대해 조명한 바 있다. 그는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을 분석한 후, <녹색탑>을 포함한 그의 일본어 소설이 “탈이데올로기적이자 탈로컬 컬러적”이며, 그는 당초부터 근대문학의 기틀을 이루는 언어/국가에 따른 문학개념에 개의치 않고 “창작의 모티프 자체가 미적 감각에”<sup>10)</sup> 놓여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문학을 창작하는 제1원리를 미적 감각에 두는 이효석의 특성은 국민문학론이 제창된 시기에도 시국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유지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 작가들의 일본어 창작을 두고 몇몇 논자가 언급했듯이, 어떤 언어로 창작하느냐에 따라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은 달라지기 때문에<sup>11)</sup> ‘미적 감각’이라는 키워드가 이효석 문학 전부를 관통한다 하더라도 창작언어가 가져오는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sup>12)</sup> 또한 언어에

9) 김형수, 「이효석, ‘비협력’과 ‘주저하는 협력’ 사이의 문학」, 『인문학논총』 제5집 1호 (2005); 김수영, 「‘동화(同化) 이데올로기’-그 이상과 현실의 변주」, 『한민족문화연구』 제22집(2007); 김재용, 「일제말 이효석 문학과 우회적 저항」, 『한국근대문학연구』 24집(2011); 윤대석, 「1930년대 ‘피[血]’의 담론과 일본어소설」, 『우리말 글』 51집(2011).

10) 김윤식, 앞의 책, 276쪽.

11) 인정식은 「『內鮮一體』와 言語」에서 미나미 지로 총독의 황국식민화 정책을 조선 고유의 언어와 생활양식의 전통을 방기하여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황민으로서의 정열과 감정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오히려 조선어의 사용을 권장한다. “言語는 끝까지 思想의媒介者이며表現의型式”(인정식, 「『內鮮一體』와 言語」, 『삼천리』 1940년 3월, 46쪽)으로 간주하고 조선의 문화와 황민화 지향을 분리하면서 조선어 사용과 조선어 문화를 지켜나가면서도 황민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12) 같은 정경을 묘사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어와 한국어의 표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언어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모국어로서의 창작과 외국어로서의 창작은 문장의 유려함이나 표현의 적절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쉽다. 이효석이 아무리 일본어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의 모국어는 한국어이고, 일본어는 외국어였다. 실제로 그는 한자 대신 일본식 독음으로 된 가계 간판의 뜻을 바로 알아채지 못해 가게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이효석·김남극 엮음, 송태욱

따라 대상 독자가 달라진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이효석의 일본어 창작 작품에는 한국어 소설에서보다 ‘조선적인 것’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효석의 일본어 문학창작이 총독부가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인 내선일체 정책을 선전하던 시대적 분위기 안에서 창작되었다는 정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효석이 일본어로 소설을 쓰게 된 경위를 고찰한 후,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안에서 〈녹색탑〉이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이 공존하는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의 성격 규명을 통해 그동안 미적인 것을 이효석의 전체 소설세계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려는 작업과 서구적인 것에 대한 지향 및 황국신민화 정책하에서도 나름대로의 저항의식을 보였다는 양분된 연구경향을 탈피하여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이 소재와 형식 면에서는 총독부 정책과 공존하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그것을 구현해내지 않는 기이한 양상을 분석해내고, 〈녹색탑〉을 중심으로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살피겠다. 저항과 협력의 이분법으로도, 이효석이 시대 현실을 무시했다는 시각으로도 분석되기 어려운 이효석 소설이 가지는 독특한 위상을 규명해내는 작업은 시대적 정황 변화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그의 태도가, 총독부 정책의 형식은 채택하나 내용은 채택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조롱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아이러니한 식민 말기의 모순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과 〈녹색탑〉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은 총 일곱 편으로, 그중 여섯 편이 단편 분량이고 〈녹색탑〉만 네 달여에 걸쳐 주간지에 연재된 중편 정도의 분량이다. 〈녹색탑〉과 〈아자미의 장〉이 게재된 『국민신보』와 『국민문학』을 제외하고는 그의 일본어 소설은 모두 일본인을 독자로 삼는 잡지<sup>13)</sup>에 게재되었고, 이 잡지들은 대부분 일본에서도 ‘외지’ 문제와 조선 문제를 다루는

---

역, 「유도소식」, 『은빛송어』(해토, 2005), 168-169쪽.

13) 이효석의 소설이 게재된 잡지로는 『外地評論』, 『文藝』, 『朝鮮畫報』, 『週刊朝日』이 있다.

대표적인 잡지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 잡지들은 일본인의 시각에 의해 편집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효석에게 청탁했을 때도 일본인들이 조선의 소설에서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을 그의 창작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일본에는 없는 ‘조선적인 것’의 특수한 가치를 강조하는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의 소재는 이전 그의 소설에는 한 번도 등장한 적 없고, 1939년 이후에 창작된 한국어 소설에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sup>14)</sup> 일본어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의 ‘조선적인 것’에 대한 기원은 ‘내지’에서 ‘내지’ 일본과는 다른 ‘외지’, ‘조선반도’ 문인의 ‘조선적인’ 문학작품을 보고 싶어 하는 일본인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효석의 소설세계에서 ‘조선적인 것’은 매우 낯설다. 그의 수필에서는 서구적 생활을 즐긴 그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으며<sup>16)</sup>, 서구 문학에 관한 단상들 역시 자주 등장한다. 그의 문학론에서 문학 일반을 가리키는 말은 언제나 서구문학이며 서구문학을 전범 삼아 조선의 문학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에게 문학론의 대상이 될 만한 작품은 “세계문학 수준”<sup>17)</sup>이라고 불릴 만한 서구의 것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14) 예외적으로 『벽공무한』의 경우, 한국어로 창작되었으나 소설 안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소설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당시 일본 총독부가 지향했던 내지의 일부로서 외지 조선이 가지는 특수성을 구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설 안에서 한복이라는 소재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낮으며, 한복에 대한 언급 없이도 서사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고려할 때 한복이라는 표상이 총독부 정책을 의식한 가운데 동원되었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15)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은 주로 한복을 입은 여성 인물을 이용하여 ‘조선적인 것’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것이 제일 많고(〈녹색담〉, 〈봄옷(春衣裳)〉, 〈가을(秋)〉, 〈영경위의 장(薊の章)〉), 그 밖에도 조선의 과거 왕조시대의 유물인 백자 혹은 장검을 이용하여 조선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작품들이 있다(〈은은한 빛(ほのかなひかり)〉, 〈가을(秋)〉). 예외적으로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중 〈은빛송어〉는 ‘조선적인 것’의 표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소설이 이효석이 처음 창작한 일본어 소설인데, 여기에는 ‘조선적인 것’의 재현이 매우 미약하다. 이 소설 이후에 창작된 일본어 소설에서 모두 ‘조선적인 것’이 적극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은빛송어〉가 일본의 편집진이나 독자들에게도 그다지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이 소설 이후 이효석은 일본에서 자신의 소설이 ‘조선문학’으로서 어필하려면 조선만의 특수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추후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연구에서 보충하도록 하겠다.

16) 김재영, 앞의 논문, 314쪽 참조.

17) 이효석, 『文運 隆盛의 辯』, 『조광』(1939년 1월), 46면.

심지어 문학이 국책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포섭된 이후인 1942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진다.<sup>18)</sup> 흥미로운 것은 그 역시 ‘조선적인 것’을 창안해가는 흐름에 발맞춘 이력이 있었으면서도, 내선일체와 국책문학의 흐름 속에서 조선 문인들이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개발하기는커녕 외지, 즉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외 편집인들의 시각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향토적인 것’, ‘지역적인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경향을 비판했다는 것이다.<sup>19)</sup>

이효석의 위와 같은 태도는 그가 일본어로 소설을 창작하기 전에 발표한 작품들을 고려해보면 매우 자연스럽다. 그는 1939년 9월 『여성』지에 발표한 〈향수〉에서 전시체제라는 시대적 상황을 빌미로 농토를 황폐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생계수단을 앗아간 총독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그린다.<sup>20)</sup> 이효석은 조선 사람들에게 아무런 실익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대일본제국건설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이 자신이 즐겨 그렸던 조선 농촌의 한가로운 풍경을 파괴하는 상황을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1940년과 1941년 사이에 발표된 이효석의 작품은 그 이전과 이후의 작품 경향과 상당히 달라진 면모를 보인다. 이 시기에 이효석은 국민문학론이 제창된 1942년의 시점에서도 비판했던 ‘조선적인 것’의 창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940년과 1941년 전후로는 총독부의 총력전 체제 돌입과 일본인의 시선을 내면화한 ‘조선적인 것’의 창출에 비판적이었던 그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조선적인 것’을 형상화한 이유는 그의 ‘내지’ 문단 진출 욕심과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이효석의 작품은 그가 ‘내지’ 문단의 잡지에 그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처음 ‘내지’의 잡지에 일본어로 작품을 발표한 시점은 1939년 2월이고 그다음 작품이 발표된 시기가 1940년 7월이었다. 이효석이 본격적으로 일본 문단에 작품을 발표하기 전인 1940년의 2월에 신건의 편집으로 ‘教材社’에서 간행된 『朝鮮小説代表作集』에 이효석의 소설 〈豚〉이 포함되었다. 바로 다음 달인 1940년 3월에 장혁주의 편집으로 ‘赤塚書房’에서 간행된 『朝鮮文學選集』에도 이효석의 자역으로 〈메밀꽃 필 무렵〉이 실린다. 1940년에

18) 이효석, 「문학과국민성-한개의문학적覺書-」, 《매일신보》, 1942년 3월 3일자-1942년 3월 6일자; 이효석, 「私はかう考へてゐる」, 『국민문학』(1942년 4월), 43-46쪽.

19) 이효석, 「문학과국민성-한개의문학적覺書-」(3), 《매일신보》, 1942년 3월 5일자 참조.

20) 이효석, 「향수」, 『여성』(1939년 9월), 90-95쪽.



일본에서 발간된 모든 조선문학 전집에 그의 소설이 실렸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그의 문학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조선 문인들에 비해 그가 상당히 주목받았다는 증거이다. 1939년과 1940년은 그 어느 시기보다 조선어로 창작된 문학이 일본에 많이 소개된 시기이기도 한 만큼, 조선에서 자리를 잡은 문인들의 일본 문단 진출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타진되던 시기였다.

『삼천리』 1940년 12월호에 실린 「新體制下の 朝鮮文學の 進路」에서 당시 조선 문인들의 일본 문단 진출에 대한 의견을 엿볼 수 있다. 좌담회에 참석한 문사인 이광수, 정인섭, 박영희, 유진오 등은 모두 1940년 한 해 동안 당시 일본에서의 조선문학 붐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더 밝은 전망을 위해 보다 원작에 충실히 번역하고, 번역국을 세워 선별적으로 조선의 작품을 소개하고, 또 좋은 작품을 창작하면 더 많은 조선의 작품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며 들뜬 심정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신체제하’라는 해당 좌담회의 제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선 문인의 일본 문단 진출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문학/문화 교류로서의 성격만 지니고 있지 않았다. 임화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sup>21)</sup>, 만주사변으로 본격적인 대륙침략의 물꼬를 튼 일본제국이, 중일전쟁 이후 대륙침략 야욕을 노골화하면서 일어난 대륙에 대한 관심, 나아가 대륙에 대한 일부로서 조선을 재발견하여 대륙의 식민화 과정 안에 조선을 포섭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보아야 적절할 것이다.

임화는 「東京文壇과 朝鮮文學」의 말미에 조선문학에 대한 일본 문인들의 견해와 이에 대한 그의 의견을 덧붙인다. 그는 『新潮』에 실린 「朝鮮文學の一疑問」이라는 글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문인의 언급을

21) 임화는 1940년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조선문학을 번역하거나 조선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평론과 소개 글을 소개하면서 조선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언급한다. 그는 “朝鮮文學을 급작스러히 밝은 脚光앞으로 끄고내인것은 亦시 東京文壇의 새로운 環境이다. 勿論 그것은 時局이다. 時局이 비로서 日本文學앞에 支那와 滿洲와 그리고 朝鮮이라는 새 領域을 展開시켰다. 이른바 大陸에의 關心이다. 滿洲 더구나 朝鮮은 새삼스레히 時局이 展開한 새로운 領域에 屬하지 아니할지 모르나 그러나 支那라는것의 客觀的位置가 鮮明히 드러나고 그 重要性이 새삼스럽게 認識된것도 亦시 事實이다. [...] 大陸이라는 것의 한 部分 惑은 그것과 直結된 重要地点(sic)으로서 各個의 地域이 尠혀 新鮮한 樣姿를 모하고 日本文學의 面前에 出現한 것이다”(임화, 「東京文壇과 朝鮮文學」, 『인문평론』, 1940년 6월, 40쪽). 임화는 이어서 조선문학을 소개하는 필자들이 그 취지를 적은 글들을 소개하는데, 그들 역시 조선문학을 소개하는 이유를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대륙의 재발견과 이를 식민화하는 과정과 결부시키고 있다.

소개하는데, 그는 “朝鮮文學이라는것이 아즉까지 國內에서 閑却된 理由의 하나는 그들 朝鮮文學이 주로 國語에 依하지않고 朝鮮語로 쓰워졌다는點”<sup>22)</sup>을 조선문학이 일본 문단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주요 이유로 꼽는다. 모든 일본 문인들이 이 익명의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이 당시 조선에서 일본어를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놓고 여러 논자에 의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기도 했던 만큼<sup>23)</sup>, 당시 문학창작에서 조선어와 일본어 중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이냐는 쟁점이 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이효석이 일본어 창작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가 일본 문단에 진출할 욕심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효석은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했고, 대학 재학 시절 일본어로 시를 창작하기도 했을 만큼 일본어로도 문학작품을 창작할 능력이 있었기에 일본어 창작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내지문단’은 조선 문단보다 일찍 서구문학을 수용하여 서구적 근대문학을 성립하고 발전시켰던 만큼, ‘내지문단’에서 그의 성공은 보편으로서의 서구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의 작품에서 일본 문단의 흥미를 끌 만한 요소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지’와는 구별되는 ‘조선반도’만의 ‘이국색’이었다. 이효석의 작품 중에는 도회적이고 서구적인 소재를 많이 차용한 것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본에 번역되어 소개된 작품은 조선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과 동물과의 애착을 그린 것이었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일본인들이 ‘조선반도 작가’ 이효석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다.<sup>24)</sup>

그의 문학에 갑자기 등장한 ‘조선적인 것’이 일본 문단 진출을 염두에 둔 것임은 일본에서 장혁주와의 만남을 기술한 수필 〈춘향전 내연 무렵〉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그는 이 수필에서 장혁주와의 만남을 즐거웠던 경험으로 기억하면서 그의 작품을 두고 “文章などどうでもいゝ文字の琢磨左程大事なものではない、その内容となる幅つたい人生や、大きな主題こそ、望ましく重大なものではあるまいか(글솜씨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다. 문장의 탁마문장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언어의 탁마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내용과 폭을 매개로 한 인생과, 큰 주제야말로 바람직한 중대한 것이 아니겠는가-이하 필자 번역)”<sup>25)</sup>라고 언급한다. 이효

22) 임화, 위의 글, 48쪽.

23) 각주 7에서 언급한 1940년 3월호 『삼천리』의 내선일체 관련 특집이 이에 해당한다.

24) 일본에서 간행된 두 조선문학선집에 관한 보다 상세한 연구로는 박숙자, 「朝鮮文學選集과 文學正典들」,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9집(2011)을 참조하라.

석의 장혁주 평가는 이어 그의 작품을 대본으로 삼고 무라야마 도모요시의 연출로 상연된 〈춘향전〉의 높은 평가로 이어진다. 당시 조선에서 기성 문인들은 일본의 극단 ‘新協’에 의해 이뤄진 〈춘향전〉의 연출이나 각색, 그리고 조선의 문학작품을 일본어로한 것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sup>26)</sup> 그러나 이효석은 다른 문인들이 중점적으로 비판했던 〈춘향전〉 연출의 측면을 ‘新協’의 〈춘향전〉이 가지는 최대 장점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다른 조선 문인들에게는 부자연스러웠던 ‘조선적인 것’의 ‘일본식 재현’을 이효석이 높이 평가한 까닭은 그 역시 〈춘향전〉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적인 것을 일본인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문학창작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sup>27)</sup> 1939년 2월에 〈은빛송어〉를 일본어로 창작하여 일본인들을 독자로 삼는 잡지에 발표한 그의 이력을 고려해보면 〈춘향전〉을 감상했던 1938년 10월 당시는 그가 〈은빛송어〉를 준비했었을 시점이다. 장혁주에 대한 이효석의 글이 발표된 시점이 1939년 1월이고, 이효석의 첫 일본어 소설인 〈은빛송어〉가 발표된 시점이 1939년 2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장혁주와 극단 ‘新協’의 〈춘향전〉이 그의 일본어 작품 창작 방향에 중요한 참조점이 되었으리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일본에서 장혁주의 소설은 ‘외지’인 조선의 현실을 소설의 소재로 삼는다는 그 특수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sup>28)</sup> 장혁주의 성공요인을

25) 이효석, 「春香傳來演の頃」, 『金融組合』(1939년 1월); 大村益夫·布袋敏博 訳, 『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 1908-1945 評論・隨筆篇 3(綠蔭書房, 2002), 15쪽.

26) 당시 『비판』에는 조선의 문인들이 장혁주 원작, 무라야마 도모요시 연출의 〈춘향전〉을 감상한 후 이를 논하는 좌담회인 「新協 “春香傳”座談會」가 실린다. 조선 문인들은 〈춘향전〉을 두고 연기력과 기술상의 우위는 인정하였으나 조선의 생활방식을 일본어와 일본식으로 번역하여 연출하는 문제, 연출자의 작품 이해 수준, 가부키적 기법의 적절성을 두고 많은 비판이 있었다. 新協의 〈춘향전〉에 관한 당대 반응에 관한 연구로는 문경연, 「1930년대 말 〈신협(新協)〉의 『춘향전』 공연 관련 좌담회 연구」, 『우리어문연구』 36집(우리어문학회, 2010)을 참조하라.

27) 무라야마 도모요시의 〈춘향전〉에 대한 언급은 ‘조선적인 것’을 표상하는 기표의 일부로서 이효석의 일본어 창작에서 반복적으로(〈가을〉, 〈은은한 빛〉) 등장한다. 이것은 그가 〈춘향전〉이 일본 사람들에게 ‘조선적인 것’을 전달하기에 적절한 텍스트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8) 고영란은 일본 문단에서 장혁주의 소설이 주목받았던 이유를 ‘문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조선을 대신하여 일본에서 산출해낸 ‘조선문학’이라는 특수한 위치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여러 자료를 인용하여 논증한 바 있다. 고영란, 「제국 일본의 출판시장 재편과 미디어 이벤트-‘장혁주(張赫駐)’를 통해 본 1930년 전후 개조사(改造社)의 전략」, 『사이』 제6호(2009) 참조.

익히 알았던 이효석은 일단 그의 소설이 가지는 표현력은 제쳐두고 '조선적인 것'을 그렸다는 소재적 강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효석은 결코 소설에서 표현력을 경시한 작가가 아니었다. 이효석은 1940년 1월 『조광』에 발표한 「文學振幅 擁護의辯」에서 문학적 형상화가 가지는 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단지 소재적 측면이 아니라 소재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을 때 실제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심미감이 부가되는 측면에 주목했었다.<sup>2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939년의 시점에서 장혁주의 소설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조선인으로서 일본 문단에서 성공한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장혁주가 일본 문단에서 호응을 얻은 원인을 파악한 이효석은 그 역시 장혁주처럼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일본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조선적인 것'의 발명에 나섰고 이는 어느 정도 일본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성공한다.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과 수필이 일본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했던 잡지들에 3년 동안 꾸준히 게재되었던 저력은 그의 작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응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녹색탑〉은 이효석의 다른 일본어 소설과는 달리 '조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효석이 항상 보편적인 이상으로 상정하던 서구의 문학, 그것도 영문학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녹색탑〉이 연재되었던 『국민신보』는 1939년 4월 3일, 매일신보사에서 “반도신민의 황국신민화”<sup>30)</sup>를 기치로 새롭게 창간한 일어 주간지였다. 《매일신보》는 『국민신보』의 광고를 매주 실어 이 주간지에 게재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그리고 당시 세계의 정세를 논한 다양한 글을 적극 소개하였다. 〈녹색탑〉의 주요 소재도 당시 총독부가 주력하던 내선일체 정책 중 하나였던 내선결혼이기는 했으나, 정작 두 남녀의 애정성사 과정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호적은 영문학이라는 매개에 의해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마치 내선동조론을 연상시키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수혈 장면에서도

29) 이효석은 표현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理想主義文學뿐이 아니라 自然主義文學亦 그러하다. 自然主義文學의 아무리 추잡한 한旬節일지라도 實人間の 그것보다는 아름답게 어리우고 넘힌다. 實感を 文字로 한바탕 바꾸어내는 까닭일는지도 모른다. 表現의神秘性이다. 旅行의感激이 小説속에서는 더욱 커지고 旅行의幻滅이 小説속에서는 緩和되고 덜어진다”(이효석, 「文學振幅 擁護의辯」, 『조광』 1940년 1월, 71쪽). 그는 문학적 형상화가 가져다주는 일상생활 장면을 심미화하는 힘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30) 「國文週刊 國民新報」, 《매일신보》, 1939년 4월 2일자.

내선인의 '괴의 동질성과 그것의 결합'이 강조되는 대신, 두 사람이 육체의 접촉보다 더 높은 수준인 '괴'를 통해 합일을 이루었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연재 매체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중 가장 총독부 정책에 친화적이어야 할 〈녹색탑〉이 오히려 다른 소설보다 총독부 정책과 소원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녹색탑〉에서 '내선연애'나 '내선동조론'과 닮아 있는 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총독부 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형상화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 Ⅲ. 평등한 애정관계의 조건으로서의 영문학

앞서 언급한 대로 이효석의 문학과 수필, 그리고 평론에서 영문학을 포함한 서구문학에 관한 언급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학뿐 아니라 서구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는 〈녹색탑〉과 유사한 시기에 발표한 〈창공〉, 〈풀잎〉에서도 두 남녀의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로 서구의 음악과 영문학을 등장시킨다. 이효석의 〈녹색탑〉에 등장한 영문학은 이효석의 그간 문학창작 경향을 고려해보았을 때 낯설지는 않으나 황국신민화, 내선일체를 독려하고 서구열강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던 당시 상황에 관한 논문들이 주로 실리던 『국민신보』에 영문학을 연구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점은 상당히 낯설다. 또한 이 소설에서 영문학은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으로 등장하므로 그것이 가지는 함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녹색탑〉에는 유럽으로 떠날 야베의 송별회를 개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영민의 학교에서 조교수로 일하다가 등장인물들이 모두 유럽의 자연풍광과 문물을 찬미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중에도 유럽 각지를 여행했다는 독일어의 조교수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一三年も滞在してをつて、最も印象の浅かつたのは、やはり瑞西だな。いつまでも忘れないのは田舎の牛乳の味。お粥のやうに濃い。搾りたてのねつとりしたのが喉にこくりこくり鳴る。香しい風味が、口の中一杯に廣まつて玉蜀黍の乳液を呑み込むやうな気持ちだ。牛乳の醍醐味といつたところだらう。おれを呑んで来ては、ヨーロッパの味はわからないよ僕はだ誰にでも、まづ瑞

西の牛乳をすゝめることにしてるのだが、矢部君も、うんとあれを呑んで来るんだな。おそらく考へ方みかはつてくるよ。西洋文明の味がほんたうに判つて来るといふものだ。(3년이나 체재하면서 가장 인상에 생생한 곳은 역시 스위스야. 언제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은 시골의 우유 맛, 죽처럼 진해. 짜낸 끈끈한 것이 목에서 꿀꺽꿀꺽 소리를 내지. 향기로운 풍미가 입 속 가득히 퍼져서 옥수수의 유액을 삼키는 기분이야. 우유의 진정한 맛일 테지. 그것을 마시지 않고 오면, 유럽의 맛을 몰라. 나는 누구든 먼저 스위스의 우유를 마셔보라고 추천하지만 아베 군도 충분히 그것을 마시고 돌아오지. 아마도 생각의 방식도 달라질 거야. 서양 문명의 맛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이지).<sup>31)</sup>

스위스를 유럽의 으뜸가는 나라로 치는 이 조교수는 무엇보다 우유의 맛을 언급한다. 긴 수사로 스위스 우유의 특출함을 논하는 그는 음식의 맛을 문명의 습득과도 관련시킨다. 유럽에서의 생활방식은 곧 유럽의 문명을 학습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유럽의 맛을 모른다는 그의 발언은, 유럽의 토착적인 것을 몸으로 체감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한다. 문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 등과 같은 물질문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주지역, 음식, 생활습관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것이며 해당 문명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아베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더 문학에 그대로 녹아 있는 그들의 거주지역이나 음식, 생활습관을 직접 체험하여 문학을 이전보다 더 깊게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아베에 대한 독일어 교수의 조언은 유럽이 여전히 그 심층에서부터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독일어 조교수 외에도, 곧 영국의 런던으로 떠날 예정인 아베에게 동료교수들은 유럽의 멋진 자연풍광을 찬미하고 아베가 유럽의 문물을 경험하고 나면 사고방식도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의 유럽행을 축하한다. 이미 유럽에서 유학을 경험한 교수들의 대화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럽을 선진문명을 가진 국가로, 유럽의 생활을 이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소회 역시 외국을 다녀오면 공부라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동경으로 유럽 유학을 준비한다. 그들에게 당시 유럽이 전쟁 중이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으며, 유럽의 근대를 넘어서기 위한 기획들이 일본 안에서 다양하게

31) 李孝石, 「綠の塔」, 『國民新報』 55호(1940년 4월 14일), 14회, 29쪽.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 유럽은 여전히 근대를 선취하여 선진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본받아야 할 전범이기 때문이다.

영문학 앞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모두 서구의 전범을 본받아야 할 '동양인'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내지호적과 외지호적 간의 위계를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영문학의 세계 안에서 등장인물 모두의 민족적 차이는 사라지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영민을 둘러싼 인간관계가 모두 영문학을 매개로 이어져 있는 소설 속의 상황은 식민지배를 둘러싼 민족격차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소설 속 인물관계를 구성하겠다는 이효석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마 교수가 야베가 맡았던 강의를 영민에게 담당하게 한 것도, 자작 부인이 딸의 사위 후보로 영민을 고려한 것도 모두 그가 영문학 연구자이기 때문이다. 요코가 영민을 사랑하게 된 계기도 영문학에 관심이 많은 그녀가 마키에게 영민을 소개받은 후, 그의 높은 학문적 수준에 매료되었다는 것에 있다. 이처럼 소설 안에서 영문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영문학의 함의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민이 연구하는 영문학 분야는 엄격히 말하면 잉글랜드의 문학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문학이다. 영민은 「데아드라의 전설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쓰고 있는데, 데아드라의 전설은 아일랜드의 고대 신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소개되었고 아일랜드인의 불굴의 저항정신을 잘 보여준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독립투쟁이 치열해지던 1880년대 초부터 독립을 쟁취한 1922년 사이에 다양한 문인에 의해 변용되어 소개되었다.<sup>32)</sup> 영민이 쓰는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논문을 쓰는 와중에 예이츠와 싱의 작품을 계속 참고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논문은 예이츠와 싱이 데아드라 전설을 소재로 창작한 극에 관한 연구이다. 예이츠의 경우는 1907년에 “Deirdre”라는 제목으로, 싱의 경우는 그의 사후인 1910년에 “Deirdre of the sorrows”라는 제목으로 데아드라 전설을 각색한 그들의 희곡이 상연되었다.

아일랜드의 문학은 영문학계에서 흥미로운 지위를 가진다. 16세기

---

32) 이세순, 「W. B. 예이츠의 운문극 『데어드라』-로맨스에서 비극적 환희로」, 『현대영미 시연구』 제15권 2호(2000), 135-136쪽 참조.

이래 지속적으로 잉글랜드의 지배하에 있었던 아일랜드는 그 지역에서 본래 사용하던 켈트어가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급기야 문학도 영어로 창작하는 상황까지 불러오게 되었다. 비록 영어로 창작된 문학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했지만, 창작 언어는 영어이기에 민족문학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아일랜드 문학이 가지는 이중적인 지위는 식민지 조선에서 아일랜드 문학이 분열적인 양상으로 논의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두고 ‘저항적’ 민족주의 문학인지, ‘타협적’ 식민지 문학인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sup>33)</sup> 실제로 영문학계에서도 아일랜드 문학에 쇠퇴해가는 영문학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sup>34)</sup>

일본에서도 아일랜드 문학은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관계를 표상하지만, 그래도 서구의 ‘영문학’의 범주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식민지’의 문학으로 취급하기도 어려웠다. 당시 아일랜드 문학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그것이 가진 첨단성의 근대성이 아니라 바로 그 반대적인 측면<sup>35)</sup> 때문이었기에 ‘일본’의 타자로서 서구도 아니고 제국의 극점에서 있는 식민지도 아닌 애매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결국 일본은 당시 세계의 주류문학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아일랜드 문학을 앵글로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한 아널드의 『켈트문학연구』의 관점을 따라 수용한다. 아일랜드 문학에서 ‘에이즈적인’ 제국에 저항적인 맥락을 제거하여 제국이 수용할 만한 성격으로 만든 것이다.<sup>36)</sup> 아일랜드 문학의 복잡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당시 경성제국대학에서 처음 부임한 영문학 교수이자 장기간 교수로서 재임한 사토 기요시도 아일랜드 문학 연구자였다.<sup>37)</sup> 따라서 당시 경성제대의 영문학 강의가 아일랜드 문학으로만

33) 이승희, 「조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 28집(2005); 김진규, 「아일랜드 문학 수용을 통한 조선 근대문학의 기획양상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참조.

34) 金杜蘭, 『『われわれ』のアイランド: 日本と植民地朝鮮におけるアイランド文學の(移動)』, 筑波大学 博士學位論文(2007), 52-53쪽 참조.

35) 물론 이 역시 근대의 산물이다.

36) 金杜蘭, 앞의 글, 15-41쪽 참조.

37) 사토 기요시가 발표한 아일랜드 관련 문헌으로는 「戰時中の愛蘭の叛亂と愛蘭時人の群」, 『六合』(1920)이라는 평론과 『愛蘭文學研究』(研究社, 1922)라는 책이 있다. 사노 마사토, 「경성제대 영문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식민지 시기 한국문학에 있어서 ‘영문학’과



한정되지는 않았지만, 강의 내용에 아일랜드 문학이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효석 역시 졸업논문을 아일랜드 문학가 싱을 주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 그에게 아일랜드 문학은 양가적인 지위에 놓인 문학이자, 제국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 없이 학문의 이름 아래 모두 평등해질 수 있는 '보편' 서구학문으로서의 기호를 가진 것이었다.

이효석이 영민을 아일랜드 문학 전공자로 설정한 배경에는 이효석이 아일랜드 문학을 전공했다는<sup>38)</sup> 자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아일랜드 문학이 가지는 복잡한 지위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이츠와 싱과 같은 아일랜드 문학자의 상황은 일제 말기 조선의 문학자들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 이효석과 영민, 그리고 영민과 예이츠 및 싱의 공통점은 소설에서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모순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이효석은 식민지/피식민지의 모순이 착종되어 있는 최전선에 영민을 위치시켜, 제국에 대해 동화와 저항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아일랜드 문학의 모호한 지위를 이용하여 총독부의 정책을 따르는 포즈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총독부 정책에 포섭되지 않은 이중적인 의미의 형상화에 성공한다. 결과적으로 영민은 이 양가적인 의미를 함의한 아일랜드 문학의 정치성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는 포즈를 취하여 '보편'으로서의 '서구문학'을 연구하는 '지식인'의 의미만 남겨둔다.

요코를 매료시킨 아일랜드 영문학연구자 영민의 모습은 둘의 사랑을 내선일체의 맥락이 아닌 다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아일랜드 영문학 앞에서 영민과 요코는 식민지/피식민지의 위계를 초월하여 서구의 근대에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한 개인으로만 존재하고, 내선일체의 맥락은 지워져버린다. 즉, 아일랜드 영문학이라는 보편성의 기호는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특수성의 기표들을 무력화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녹색탑〉에서 이효석은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표방하는 포즈만 취하고, 정작 그 내용은 담아내지 않는 방식으로 총독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총독부 정책을 구현해내는,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모순되지 않는 서술방식을 채택한다.

이중언어 창작, 『한국현대문학연구』 26집(2008), 332쪽 참조.

38) 아일랜드 문학자로서의 영민은 경성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아일랜드 문인 중 한 명인 싱을 소재로 졸업논문을 제출한 이효석의 전기적 사실과도 맞물린다.

#### IV. 애정의 완성으로서의 수혈

이효석은 소설에서 ‘육체’의 형상화를 누구보다 중시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1938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조선일보》에 3회에 걸쳐 연재한 「西歐精神과東方情趣-肉體文學의傳統에對하야」라는 글에서 소설 안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형상화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그리스 문학 전통에서부터 서구 근대 문학의 기원, 그리고 19세기의 자연주의 사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디휴메나이징’ 운동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학 사조들의 변형에 주목하면서 육체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자연주의 경향의 발흥도 결국 육체를 중시하는 ‘디휴메나이징’ 운동으로 환원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소설에서 육체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문학 사조에서 육체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강조한 그의 이 평론은 1938년 3월 6일에 《조선일보》에 게재한 「健康한生命力の追求-卑俗하게鑑賞함은讀者의허물」이라는 글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가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은 그의 소설을 두고 성적 욕망에 탐닉한다거나, 지나치게 애욕적이라는 다른 문인들의 평가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설에 형상화된 애욕을 선정적으로 해석하는 평자들을 비판하면서 애욕은 인간의 본연적인 면모이자 생명력을 나타내주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愛慾을 그리기를 恥辱으로녀이는作家가있다면 모름직이 創作의붓을꺼거버리라”<sup>39)</sup>는 그의 말에는 인간의 다양한 면모의 형상화를 본연으로 삼는 문학에서 애욕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두 평론은 소설 속에서의 ‘육체’의 재현을 중시하는 그의 입장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녹색담〉에 등장하는 수혈 장면 역시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육체성을 중시하는 이효석의 문학과 상통하는 면이 존재한다. 이 소설에는 ‘내지’와 ‘외지’ 간의 차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내지와 외지 간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요코의 자살소동이 있기 전, 영민이 제국대학 강사임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學部内のいらくと微妙な空氣(학부 내의 여러 가지와 미묘한 공기)”<sup>40)</sup>,

39) 이효석, 「健康한生命力の追求-卑俗하게鑑賞함은讀者의허물」, 《조선일보》, 1938년 3월 6일자.

“特殊事情(특수사정)”<sup>41)</sup>과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처리되어 있고, 영민의 임용이 요코와 관련된 소문으로 인해 좌절되자 마키가 실력본위로 인사를 결정해야 하는 원칙이 무너졌다면 영민의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법한 일로 간주하고, 다키가와가 하나이와 영민의 호적과는 상관없이 둘 모두 요코를 아프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문전박대하자 오히려 하나이와 영민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유대가 싹튼다.

それから毎日の日参となり、どちらも日日の計画を少しづつ更へたつもりだったのが、不思議と同じ時刻、同じ電車の連続で、滝川家での結果も、同じ失敗の反復、未だに洋子の影すら拜めず、不成功の苦杯を嘗めつゝけてあつた。[...] もはやお互いに敵ではなく、滝川こそ、共同の強敵だつたのだ。皮肉なことになつたのだ。お互いに対する憎しみは消え、今はたゞ共同の敵に対する作戦を協議し、失敗をかこつ二人だつた。(그로부터 매일 찾아가게 되어, 둘 다 매일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려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같은 시간에 같은 전차를 계속 타게 되고, 다키기와 가에서의 결과도 같은 실패의 반복이었다. 아직도 요코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고 실패의 고배를 계속 맛보고 있었다. [...]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 적이 아니고 다키기와야말로 공동의 강적이었던 것이다. 알갭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증오는 사라지고, 지금은 단지 공동의 적에 대한 작전을 협의하고 실패를 꾸짖는 두 사람이었다.)<sup>42)</sup>

하나이와 영민은 반복되는 우연적 만남과 실패 속에서 대립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오히려 우정이 싹튼다. 이들의 우정은 반복되는 우연한 만남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모두 좌절된다는 동질감에서 비롯되었다. 즉,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평등’하다.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위계 구도에서 생각해본다면, 다키가와와 같은 일본인인 하나이를 보다 우대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키가와에게는 그가 일본인이냐 조선인이냐 하는 구별은 의미가 없다. 그에게 두 사람은 조카를 아프게 만든 ‘남자들’일 뿐이다. 다키가와와 ‘평등한’ 박대는 두 사람이 같은 고통을 공유한다는 우정을 싹트게 만들기에 충분하였고, 서로 공모하게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둘 사이의 민족적 위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40) 李孝石, 『綠の塔』, 『國民新報』, 43호(1940년 1월 21일) 3회; 大村益夫·布袋敏博 譯,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1908~1945 セレクション1(綠蔭書房, 2008), 283쪽.

41) 李孝石, 위의 책, 284쪽.

42) 李孝石, 『綠の塔』, 『國民新報』, 51호(1940년 3월 17일), 10회, 28쪽.

것으로 취급된다.

〈녹색탑〉의 수혈 장면은 조선과 일본 민족이 서로 피를 교환할 수 있을 만큼 같은 혈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선일체 정책과 표면적으로는 상통할지 모르나, 앞서 언급한 이효석의 육체관과 〈녹색탑〉에서 육체적 접촉이 가져다주는 인간관계가 변화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내선일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긴밀한 육체적인 접촉을 형상화하는 장면으로 독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육체적인 접촉’이 피부와 피부가 닿는 것만이 아닌 몸을 순환하는 혈액과 혈액의 결합이라는 보다 내밀한 결합으로 확대하여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녹색탑〉에서 육체의 매력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등장한다. 영민은 같은 학교 학생인 최철에게 민자작 부인이 영민을 그녀의 딸 소희의 남편으로 삼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まるで、品物のよりとりぢやないか。(마치 물건처럼 취급받는 것이 아닌가)”<sup>43)</sup>라며 중매결혼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에게 연애감정을 품고 있는 소희 덕분에 그는 소희와 자주 마주치고, 급기야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결정적으로 그가 소희에게 매혹을 느끼는 계기는 목욕을 마치고 샤워가운만 입고 나온 소희의 모습을 보았을 때이다.

圖らずも、うち寛いでゐる素姫の姿を前にして、英民はもつとも美しい一つの肉体を、そこに見た一つの驚異であり—それこそ、絶対だった。

自分の肉体を、最上のものであり至美なものだと、思つた様だつたが、目の前のそれが、数等至美なものであり、至高なものであることに氣が付いた。狭い浴槽の中で、たゞ自分だけでをしか見なかつたにだ。今、も一つのものを目の前に見るに及んだ、蒙を啓かれ、浴槽と眼をみひらいたのだつた。美しいのは、自分ではなくて、相手だつた。英民はうつとりと我を忘れてゐた。<sup>44)</sup>(의도하지 않게 편안한 소희의 모습을 앞에 두고 영민은 가장 아름다운 한 육체를 거기서 보았다. 하나의 경이이고—그것이야말로 절대였다. 자기의 육체를 최상의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였으나 눈앞의 그것은 월등히 아름다운 것이고 지고한 것임을 알아차렸다. 좁은 욕조 안에서, 오직 자기만을 보고 있었다.

43) 李孝石, 「綠の塔」, 『國民新報』 43호(1940년 1월 21일), 3회; 大村益夫·布袋敏博 譯,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1908-1945 セレクション1(綠蔭書房, 2008), 273쪽.

44) 李孝石, 「綠の塔」, 『國民新報』, 49호(1940년 3월 3일), 8회, 29쪽.

지금 다른 하나를 눈앞에 두고 보게 되자, 꿈을 깨어 확연히 눈을 뜬 것 같았다. 아름다운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상대방이었던 것이다—내가 아니라 너였다. 영민은 황홀하여 나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소희의 씻고 나온 몸을 보기 전까지 자신의 몸을 보면서 도취되어 있던 영민은 소희를 보고 나서 바로 생각을 바꾼다. 뿐만 아니라 소희의 육체에 완전히 도취된다. 이 도취는 ‘소희’에 대한 도취와는 다르다. 소희를 보는 영민의 시선은 ‘소희’가 아니라 그녀의 ‘육체’에 전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이 장면은 육체라는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아름다움에 감화될 수 있다는 이효석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인다. 육체적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주위를 집중시키는 엄청난 힘과, 자기 자신에 대한 도취를 깨뜨리게 만드는 엄청난 존재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육체의 힘은 육체의 소유자가 소희라는 점까지 잊게 만들 만큼 강력한 흡수력을 발휘한다. 이 장면은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과 신비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미감을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소희의 육체미를 느끼고 나서 오히려 영민은 그동안 소희에게 보였던 애매모호한 태도를 벗어나, 그녀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한다. 이효석의 육체관에서 육체는 자기 자신을 입증해주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므로, 육체를 통한 만남은 상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의를 확인하고 이에 경의를 표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상대방의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로서의 육체적 접촉의 힘을 확인한 영민은, 요코에게 그의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희가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고자 한다. 소희와의 육체적 접촉을 통해 진심을 느낀 그는, 그 역시 육체적인 방법으로 다카가와에게, 그리고 요코에게 그의 진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진심은 요코와의 만남이 몇 번이나 좌절되어도 계속 시도할 만큼, 소희가 그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수준 높은 것임은 물론이다. 그가 긴급히 수혈이 필요한 소희를 위해 선뜻 자신이 수혈자가 되겠다고 자처한 것은 그의 진심을 전달하는 보다 수준 높은 ‘육체적’ 접촉의 한 방안이었다. 수혈은 서로의 육체적 매력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코에게 수혈을 해주겠다고 나선 네 사람 중 오직 요코에게 수혈을 해줄 수 있는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영민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洋子の血の中に、僕の血が混ざるのだ。そして、彼女のからだを救ふのだ。』

ひそかな、勝利の喜びだった。花井たち三人と競争して、最後の一人に選ばれたのだ。洋子を救ふのは、自分なのだ。たゞの暗号にしては、不思議すぎる。その結果の背後に、何か新秘的な意志を考へては、いけないのだらうか—英民は、グラスの上の新秘をまえにして、複雑な想ひに没つた。<sup>45)</sup>(“요코의 피 속에 내 피가 섞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몸을 구하는 것이다.” 은밀한 승리의 기쁨이었다. 하나이 등 세 사람과 경쟁해서 최후의 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다. 요코를 구하는 것은 나다. 보통의 암호로서는 너무도 이상하다. 이 결과의 배후에 무언가 신비적인 의지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영민은 글라스 위의 신비를 앞에 놓고 복잡한 생각에 빠졌다.)

혈액검사 과정에서 요코에게 적절한 피를 수혈해주는 사람을 찾는 과정은 마치 요코에게 제일 잘 맞는 사람을 가려내는 과정처럼 보인다. 같은 혈족이고, 심지어 요코와 같은 부모를 공유하는 마키의 혈액마저 요코와 맞지 않는 상황은 영민과 요코의 결합이 의미하는, 남매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더 깊은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혈이 결정된 이후, 영민 역시 피의 결합이 가져오는 특별함을 의식하며 이것을 ‘신비’라고 의미화한다. 사람의 육체를 감싸는 피부 아래에 있는 보다 내밀한 것, 그리고 어떤 인간도 그것 없이 살 수는 없으나 아무나 그 내밀한 것과 섞이지 않는 상황은 두 사람의 결합이 근본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피와 피의 결합은 이제까지 요코와 영민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벽을 일거에 해소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요코가 조선에서 맺었던 관계들을 모두 청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다키가와 역시 요코와 영민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이 역시 영민이 요코의 배우자로서 적임이라고 인정한다. 수혈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서로가 ‘운명’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문제가 첨예한 안건으로 등장하면서<sup>46)</sup>, 혈통주의에 기초한 호적제도 아래 조선

45) 李孝石, 「綠の塔」, 『國民新報』, 56호(1940년 4월 21일), 15회, 30쪽.

46) 今西一, 「帝國「日本」の自画像-1920年代の韓國(同化)論」, 『世紀転換期の国際秩序と

인을 같은 조상을 가진 동족으로 편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했다. 중일전쟁 이후 황국신민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내선일체의 문제는 거론되기 시작하였는데, 이효석은 육체적 친밀감이라는 인간 보편의 문제 앞에서 내선일체가 전재하는 내지인과 외지인 사이의 위계를 무너뜨려버린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이효석의 일본어 창작 가운데 〈녹색탑〉이 가지는 위상을 검토하고, 이효석이 도달해야 하는 이상으로 설정하는 서구라는 기표가 내선일체 정책과 맞물려 빚어내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적인 것’을 창안해내거나 내선일체 정책을 소설 안에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당시 총력전 체제하에 있던 일본의 문화정책을 좇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에서, 서구에 대한 지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인물들이 식민지/피식민지인으로서의 자각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총독부 정책을 낙후시키고 조롱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목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

이효석은 일제 말기에 ‘내지’의 일부이면서도 ‘내지’와 구별되는 ‘외지 조선반도’의 지역색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조선 문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의 일본어 소설을 보면 그 역시 ‘조선적인 것’의 창안에 한몫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그의 일본어 창작의 동인은 역시 그가 지향하는 서구 문단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일본 문단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그의 일본어 창작 중 『국민신보』에 연재되었던 〈녹색탑〉은 이효석의 평론에서 항상 보편으로 상정되었던 서구의 것과 내선일체 정책이 동시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총독부가 황국신민화 이념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간한 이 잡지에서, 〈녹색탑〉은 내선일체 정책의 하나인 내선결혼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면서도, 정작 제일 중요한 식민지/피식민지인이라는 의식을 등장인물들에게서 제거함으로써 그 형태의 핵심 내용은 모두 제거된다.

---

『国民文化の形成』(柏書房, 1999) 참조.

이효석의 <녹색탑>이 내선결혼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내선일체 정책과는 거리를 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문학과 육체적 접촉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데 있다. 소설의 주인공 영민은 영문학, 정확하게는 아일랜드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아일랜드 문학은 제국에 대한 동화와 저항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함의하는 문제적인 소재이다. 영민은 아일랜드 문학의 정치성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아일랜드 문학의 이중적인 의미는 남겨두고 '보편'으로서의 서구문학을 연구하는 지식인이라는 표상만 남겨둔다. 문학에서 육체와 육체의 접촉인 애욕의 문학적 형상화는 이효석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마치 일선 동조론을 연상시키는 영민이 요코에게 수혈해주는 장면은 단지 살과 살의 육체적 접촉보다 피와 피의 접촉이 더 수준 높은 친밀한 접촉으로서 강조되면서 인간 보편적인 애정을 확인하는 사건으로 형상화한다.

이효석이 일본인과 조선인들을 동등한 지위에 세우기 위해 사용했던 코드로서 서구문학, 더 구체적으로는 아일랜드 영문학이라는 보편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보편이면서 동시에 식민성과 탈식민성을 내포하는 양가적인 것이기도 했다. 아일랜드 영문학은 당시 민족 위계를 지우고 대신 '학문'으로 승부하는 세계를 표방한 경성제국대학에서도 통용되던 하나의 언설코드였다. 경성제국대학 영문학과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인 사토 기요시는 부임하기 전, 이미 일본에서부터 아일랜드 문학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바 있고, 그의 밑에서 수학한 이효석은 학부 졸업논문으로 「존 밀링턴 싱의 극연구」를 제출하였다. 일본 내의 제국대학보다 월등히 조선인 비중이 높았던 경성제대에 식민지 경험에 저항적인 성격을 가진 아일랜드 문학을 연구한 학자를 부임시켰는가는 의문이지만, 제국으로서의 영국의 영문학이 아닌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나 독립한 아일랜드의 식민성과 탈식민성이 중첩된 문학의 교육은 제국대학 내 조선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국의 적자가 아니라는 비극적 현실인식과 식민지 역시 학문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동시에 불어넣어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맥락을 가진 아일랜드 영문학을 '보편'으로 호명하는 이효석의 태도는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관계를 얼크러뜨려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위계를 희석시키기에 적절한 것이었다.

1940년에 절정을 이룬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창작은 그 이후 점차 시들해지더니 1942년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는 그가



지향하는 서구문학을 전범으로 삼는 문학으로는 일본의 문단에서 '반도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의 자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이 조선에서 아무리 활발히 진행된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 있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경계는 조선이 식민지인 한 극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효석이 일본 문단에 진출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반도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마주해야 했고, '반도인'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활용해야만 했다. 그런 점에서 〈녹색탑〉은 이효석이 지향하는 보편으로서의 '서구'라는 가치와 내선일체 정책 사이의 기이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효석의 〈녹색탑〉은 제국에 저항하는 취지에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의미화하기는 어려우나, 총독부의 황국신민화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국민신보』라는 매체에 제국의 정책을 서사에서 활용하면서도 그 정책의 내용은 제거한 채 형식만 차용하여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조롱하는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 참 고 문 헌

《國民新報》, 《매일신보》, 《조선일보》.

『삼천리』, 『여성』, 『인문평론』, 『조광』.

이효석, 『새롭게 완성한李孝石全集』 1-8. 창미사, 2003.

이효석·김남극 엮음, 송태욱 역, 「유도소식」. 『은빛송어』, 해토, 2005.

大村益夫·布袋敏博 엮음, 『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 1908-1945 評論·隨筆篇 3, 綠蔭書房, 2002.

\_\_\_\_\_, 『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 1908-1945 セレクション 1, 綠蔭書房, 2008.

고영란, 「제국 일본의 출판시장 재편과 미디어 이벤트-‘장혁주(張赫駐)’를 통해 본 1930년 전후 개조사(改造社)의 전략」. 『사이』 제6호, 2009.

김진규, 「아일랜드 문학 수용을 통한 조선 근대문학의 기획양상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문경연, 「1930년대 말 <신협(新協)>의 『춘향전』 공연 관련 좌담회 연구」. 『우리어문 연구』 36집, 우리어문학회, 2010.

박숙자, 「朝鮮文學選集과 文學正典들」.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9집, 2011.

사노 마사토, 「경성제대 영문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식민지 시기 한국문학에 있어서 ‘영문학’과 이중언어 창작」. 『한국현대문학연구』 26집, 2008.

이세순, 「W. B. 예이츠의 운문극 『테어드라』-로맨스에서 비극적 환희로」. 『현대영 미시연구』 제15권 2호, 2000.

이승희, 「조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 28집, 2005.

今西一, 「帝国「日本」の自画像-1920年代の韓國<同化>論」. 『世紀轉換期の国際秩序と国民文化の形成』, 柏書房, 1999.

金杜蘭, 『『われわれ』のアイランド: 日本と植民地朝鮮におけるアイランド文學の<移動>』. 筑波大学 博士學位論文, 2007.

朴慶植.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下券. 青木書店, 1973.

신형기, 「李孝石と植民地近代-分裂の記憶のために-」. 『植民地近代の視座 朝鮮と日本』, 岩波書店, 2004.

鈴木裕子, 『従軍慰安婦・内鮮結婚: 性の侵略・戦後責任を考える』. 未来社, 1992.

##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이효석의 일본어 창작 가운데 〈녹색탑〉이 가지는 위상을 검토하고, 이효석이 도달해야 하는 이상으로 설정하는 서구라는 기표가 내선일체 정책과 맞물려 빚어내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효석은 일제 말기에 ‘내지’의 일부이면서도 ‘내지’와 구별되는 ‘외지 조선반도’의 지역색을 역지로 만들어내는 조선 문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의 일본어 소설을 보면 그 역시 ‘조선적인 것’의 창안에 한몫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그의 일본어 창작의 동인은 역시 그가 지향하는 서구 문단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일본 문단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일본어 창작 중 『국민신보』에 연재되었던 〈녹색탑〉은 이효석의 평론에서 항상 보편으로 상정되었던 서구의 것과 내선일체 정책이 동시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국민신보』는 총독부가 황국신민화 이념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창간된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녹색탑〉에는 내선일체 정책의 하나인 내선결혼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면서도, 정작 제일 중요한 식민지/피식민지인이라는 의식을 등장인물들에게서 제거함으로써 내선일체의 내용은 모두 제거된다. 이효석의 〈녹색탑〉이 내선결혼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내선일체 정책과는 거리를 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문학과 육체적 접촉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데 있다. 보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두 장치는 내선일체 정책의 형식들을 채우는 내용으로 기능함으로써 결국 ‘내선일체 없는 내선일체’가 이효석 소설 안에서 형상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1940년에 절정을 이룬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창작은 그 이후 점차 시들해지더니 1942년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는 그가 지향하는 서구문학을 전범으로 삼는 문학으로는 일본의 문단에서 ‘반도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의 자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녹색탑〉은 이효석이 지향하는 보편으로서의 ‘서구’라는 가치와 내선일체 정책 사이의 기이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투고일** 2014. 9. 24.

**심사일** 2014. 11. 15.

**게재 확정일** 2014. 11. 26.

**주제어(keyword)** 이효석(Yi Hyosuk), 〈녹색탑〉(「録の塔」, 「Green Tower」), 내선일체(Japanese Assimilative Policy), 『국민신보』(Gokuminshinpo), 조선적인 것(Korean Thing)

## Abstracts

### 'Becoming Colonized Person' As a Tool of Approaching 'Universal' Bae, Sang-mi

This paper looked through 〈録の塔〉 in the context of Japanese literature written by Yi Hyosuk, and analyzed the effect of western symbol that was put on ideal by him. Although Yi Hyosuk criticized Korean authors who made 'the color of Korean' constrainedly, it is very difficult to erase the suspicious that he also cooperated it. The motivation that he created Japanese literature was participating Japanese literary world for approaching western literary world more closely. 〈録の塔〉 that was published series is a very interesting text because it have two factors, assimilative policy by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value of western modernism. Even though the purpose of starting publication this journal by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broadcasting their imperial ideology, it failed to deliver their contents because Yi eliminated his characters' identity as colonist/colonized. This result was caused by using English literature and body connection as a western modernism value.

The Japanese literature written by Yi Hyosuk was peaked in 1940. However, after that, it became disappearing. It might be connected the truth that he could not create his pieces following western modern novel as a Korean author in Japan. In that sense, 〈録の塔〉 was a curious compromised result between assimilative policy and his ideal view of literature.